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뉴스레터 제 248 호

2021 년 5 월 3 일

- 목 차 -

■ 협회 소식

1.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ROUND2 참가 기업 모집 안내
2. ESG 실무그룹 1 차 미팅 (4/15) 결과 보고
3. 반부패 실무그룹 1 차 미팅 (4/23) 결과 보고
4. 제 6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4/6) 결과 공유

■ 본부 소식

1.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2. UNGC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런칭

■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 [SDGs 솔루션] 물이 필요 없는 CO2 염색법

■ UNGC 회원 뉴스

1.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폐배터리 '플랫폼 용기' 특허 취득
2. 네이버 신사옥·제 2 데이터센터에 '친환경' 입힌다...환경전담조직 신설
3. 수자원공사, 국내 공공기관 최초 글로벌 RE100 가입
4. IBK 기업은행, 4 대 주요 ESG 국제표준·이니셔티브 가입
5. '그린 워싱은 가라'...6 월부터 실시간 ESG 웹 리포팅 도입

■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회원
2. COP/COE 제출회원
3. 2020년도 연회비 납부 해당 회원사 안내
4. UNGC 로고 사용정책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협회 소식

1.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 젠더 이퀄리티 (TGE)> ROUND2 참가 기업 모집 안내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 프로그램(TGE) 2 차 라운드 등록 시작



여성역량강화 프로젝트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이하 TGE) 프로그램 등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는 양성평등을 위해 더욱 야심찬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성의 비즈니스 리더십과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녀 간 경제 격차를 줄이려면 257년이 걸릴 것이라는 추정치가 나올 정도로 진전의 속도는 너무 느립니다.

성 평등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유엔글로벌콤팩트가 UNGC 회원사를 TGE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TGE는 전 세계 1000개 이상의 기업이 함께 여성 임원 비율 향상과 여성 리더십 강화를 위한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달성함으로써 기업이 성 평등 지지 약속을 실천하도록 장려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평등 가속화를 위한 TGE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합니다:

- 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과 리더십을 증진하기 위한 야심차고 현실적인 기업 목표 설정
- 성평등 학습 기회 참여와 맞춤형 실행 계획 수립
- 여성역량강화원칙(WEPs) 성 격차 분석 툴 사용을 통한 자사의 성 평등 현황 파악
- UN 파트너, 전문가, 동종업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성 평등 전략 수립
- 자사 여성 임원 및 성 평등 사례 소개

글로벌콤팩트 지역 네트워크와 협력하여 진행되는 TGE 는 성평등에 관한 글로벌적 시각과 지역 정보, 파트너 및 실행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더 알아보기](#)

2. ESG 실무그룹 1 차 미팅 (4/15) 결과 보고

2021년 ESG 실무그룹 1차 미팅 결과 보고

2021년 4월 15일

일시: 2021년 4월 15일 (목) 오후 2시~5시

장소: 서울역공간모아 Sub Hall (9F)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4월 15일(목) 회원사 대상 2021년도 ESG 실무그룹 1차 미팅을 가졌습니다. 본 미팅에서는 ESG 실무그룹의 총 23개 기관이 참석하여 이후 참석기업들은 자사의 ESG 대응 현황을 공유하고, ESG 현안 및 실무그룹 운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관(가나다 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두산,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 롯데정밀화학, 롯데지주, 만도, 법무법인 지평,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새마을금고중앙회, 코웨이, 포스코건설, 포스코인터네셔널, 한국환경공단, 한전KDN,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KT, LG생활건강, LG전자, MYSC, SK가스, SK하이닉스

1. 인사말 및 영상 시청

UNGC 한국협회 권춘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전 세계적으로 ESG를 기업의 전략과 운영에 내재화시키는 것이 기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UNGC는 ESG 생태계를 구축하고 발전시키는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권춘택 사무총장은 참석한 회원사들이 이미 지속가능성을 위한 UNGC 4대 분야 10대 원칙을 이행하고 있는 만큼, 각자의 기업에서 국내에 ESG 환경이 자리 잡는데 일조해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CNBC가 밴쿠오브아메리카, MSCI, 런던 경영대학원 등 전문가의 인터뷰를 담아 제작한 “The Rise of ESG Investing”을 시청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협회가 번역한 본 영상에는 △ESG의 정의 및 최근 동향 △투자 관점에서 ESG가 갖는 의미 △ESG의 미래 전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권춘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사무총장



김범석 S&P다우존스 한국사무소 지사장



CNBC “The Rise of ESG Investing” 영상

2. 발표

첫 번째 발표에서는 S&P 다우존스 한국사무소 김범석 지사장이 “S&P ESG Index Series & S&P DJI ESG Scores”의 제목으로 S&P에서 발표하는 관련 지수에 대해 소개를 했습니다. 김지사장은 RobecoSAM과 S&P 다우존스가 협업을 통해 발표하는 ESG 관련 지수가 20여 년 동안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설명하면서, 최근 시가총액의 75%에 달하는 기업 대상으로 지수를 공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수제의 조건 중에 하나가 UNGC 10대 원칙 준수를 기반으로 일정 수준의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며, UNGC 10대 원칙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ESG 관련 상품에 대한 투자는 뚜렷한 투자 원칙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질의 응답 시간에는 △산업군 다양화에 따른 평가 대응 △테마 ESG 상품에서 여성, 인권 등 사회(S) 관련 이슈 포함 계획 △지수 제외 기준 강화 여부 △"media impact"에서의 언론 기관 신뢰도와 평가 기준 △금융권에서의 DJSI 지수 활용도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질의 응답을 통해 S&P 다우존스에 평소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물어보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어 **UNGC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이 최근 ESG 기업 대응에 대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는 △맥킨지와 KPMG 보고서에 언급된 기업 ESG 통합 전략 △딜로이트와 PWC의 보고서에 소개된 기업의 ESG 공시 방향성 △EU의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 (SFDR) 시행 및 영국의 FTSE100 소속기업 절반의 임원 급여에 ESG 기준 적용 등 최근 글로벌 ESG 동향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의 ESG 모범규준 개정안 마련 및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ESG 관련 공시 항목 대폭 확대 등의 최근 국내 ESG 동향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수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팀장



이은경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실장



ESG 실무그룹 1차미팅 현장

3. 기업 ESG 대응 현안 공유

마지막으로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의 진행으로 참석 기업들의 ESG 대응 현안 공유 및 실무그룹 운영 방안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참여기업은 현재 자사의 ESG 관련 활동과 ESG 투자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스코인터네셔널** - TCFD와 SASB를 포함한 투자자 요구 정보 공개, 기업시민국 중심의 기업시민 활동 강조, ESG 위원회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안 로드맵 설정 △**IBK기업은행** - ESG 경영팀 신설 및 ESG 위원회 신설 검토 계획, 직원 대상 ESG 인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진행, 탄소 감축 사업 착수 △**LG전자** -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ESG 경영 방향성 제시 예정, ESG 위원회 상반기 내에 신설 계획, 이해관계자 신뢰 확보를 통한 지속가능성장 추구 △**코웨이** - 전략의 통합과 내재화에 집중 계획, ESG 거버넌스 구조 발전 예정 △**KT** - ESG 전담 조직 신설, ESG 추진 전략을 담은 10대 핵심프로그램 선정, 노사 공동 ESG 경영 선언식 진행 △**만도** - 지속가능경영 체계 정리, 글로벌 기준을 추가한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외부평가 대응 등급 상향 또는 유지 노력

이후 모든 참석 실무진들이 돌아가면서 인사를 나누고, ESG 실무그룹에 대한 기대를 공유했습니다. ESG에 대한 기업 내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서로 배우고 공유하는 모임으로 운영되길 바란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UNGC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과 함께 **포스코인터네셔널 서은정 과장**과 **IBK기업은행 박현경 과장**이 2021년도 ESG 실무그룹의 공동 의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추후에 진행될 2차 미팅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김두일 연구원 (T. 02-749-2149)

자세히 보기

3. 반부패 실무그룹 1차 미팅 (4/23) 결과 보고

2021년 반부패 실무그룹 1차 미팅 결과보고

2021년 4월 23일

일시: 2021년 4월 23일 (목) 오후 2시~5시

장소: 유엔글로벌콤팩트 사무처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지난 4월 23일 (목) 2021년 반부패 실무그룹 첫 모임을 가졌습니다. 본 회의에서는 ESG와 준법, 윤리경영 및 글로벌 동향에 대한 발표와 함께, 회원사 반부패·윤리경영 담당 실무진이 한자리에 모여 반부패 이행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실무그룹에서 운영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관(가나다 순): LG전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동아쏘시오홀딩스(주),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중공업(주), 롯데쇼핑, 법무법인(유) 지평, 부천여성청소년재단, 서울산업진흥원, 속조시시시설관리공단, 예금보험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문화예술회관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환경공단, 한라홀딩스, 한전KDN

1. 인사말 및 영상 시청

UNGC 한국협회 권훈택 사무총장은 인사말에서 "UNGC가 다루는 다양한 지속가능성 이슈 중 반부패는 기업의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협회는 '기업 청렴성 소사이어티(Business Integrity Society, BIS)' 프로젝트와 실무그룹 활동을 통해 우리 기업의 반부패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훈택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총장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프랑스 체인 OECD 반부패 수석 애널리스트 영상

2. 발표

먼저 **법무법인 지평 민창욱 변호사**의 "ESG와 준법, 윤리경영"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민창욱 변호사는 기업 환경과 규제 변화가 어떻게 ESG의 흐름을 추동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글로벌 ESG 시장의 동향과, ESG 통합경영을 위한 전사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정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민 변호사는 "과거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 법적 위험만 점검했다면, 현재는 ESG 시대에 맞춰, 사회적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 기회 발굴을 위한 규제 동향을 점검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할 수 있는 조직체제로 정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컴플라이언스에 대한 최고경영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OECD 프랑스 체인(France Chain) 반부패 수석 애널리스트**의 "기업 반부패 동인, 매커니즘 및 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영상 강연이 있었습니다. 본 연구는 30여 개국 130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발표를 통해 프랑스 체인 수석은 △기업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도입 이유 △부패 리스크 측정 및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개발 과정 △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의 장애물 등에 대해 인사이트를 공유했습니다.

이후 **UNGC 한국협회 이수란 팀장**이 “ESG와 글로벌 반부패 이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ESG 투자 고려 요소 중 반부패의 중요성 △연기금의 반부패 평가 기준 및 사례 소개 △UNGC와 UN책임투자원칙(PRI)이 공동작업한 반부패와 사회책임투자 연계에 따른 기업 가이드 △세계경제포럼(WEF)의 반부패 공시 지프 △반부패 실사와 ESG 리스크 통합 관리 전략 △국내외 ESG 주요 동향 소개 및 글로벌 반부패 가이드라인 및 컴플라이언스 발간자료 소개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이수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팀장



문형구 고려대학교 경영대 명예교수



반부패 실무그룹 1차 미팅 현장

3. 반부패 이행 현황 공유

이후 **문형구 교수 반부패협력대사 겸 고려대 명예교수**의 진행으로 본 미팅에 참여한 회원사들의 반부패 이행 현황 공유가 이루어졌습니다. 주요 논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동아쏘시오홀딩스** - 부패 사전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뉴스 운영,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온라인교육 및 정도경영실천 메시지 박스를 통해 반부패 이행 시스템 구축 △**한라홀딩스** - 윤리규범 사이버 신고센터 및 선물접수 신고센터 운영, 임직원/신입사원/협력업체 등의 정도경영 교육 실시, 철저한 리스크 점검을 통한 수익성 확보 및 비재무적 가치 향상 △**한국무역보험공사** - 임직원 행동강령 운영 강화, K-SURE 반부패청렴시스템 도입, 내부부패 진단 및 부패방지경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윤리경영 글로벌 스탠다드 이행 △**에금보험공사** - 상호존중 문화 정착을 통한 갑질 근절 문화 확산, 칭찬카드인 ‘쓰담카드, 상호존중의 날, 직장 예결 연극 상연, 경어 사용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 수립 및 운영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반부패 척결 등 처벌규정 강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윤리의식 체화 △**한전KDN** - 반부패 정책 추진 시스템 공유, 신입사원과 기성세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구제절차 운영, 연도별 추진 실적 공유 △**한국자산관리공사** - 부패방지 시책평가 1등급 5년 연속 달성,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체험형 청렴 프로그램 확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기관 미션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윤리경영 모델 수립, 문화분야 유관기관 공동 선언문 제정, 반부패 내재화를 위한 캠페인 및 프로그램 시행 △**부천여성청소년재단** - 감사독립체계 마련으로 청렴기반 강화, 민간분야 갑질문화 근절 및 청렴문화 확산 추진

문형구 교수는 ESG 중 S가 의미하는 사회적책임을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볼 때, 기업 및 기관이 반부패와 ESG 간 연계성에 대한 해답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며, 앞으로 본 실무그룹을 통해 서로 의견을 모으고, 새로운 반부패 콘텐츠를 발굴하며, 각 조직이 당면하고 있는 이슈에 대한 개선점을 함께 찾아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쇼핑 김정배 책임과 한국무역보험공사 강나연 대리**가 작년에 이어 올해 반부패 실무그룹의 Co-Chair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진행될 2차 미팅에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강한별 연구원 (T. 02-749-2150)

자세히 보기

4. 제 6 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4/6) 결과 공유

제6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결과보고

2021년 4월 6일

일시: 2021년 4월 6일 (화) 오전 10시~12시

장소: 포시즌스 호텔 누리블룸 (6F)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는 4월 6일(화) 세계자연기금(WWF), CDP한국위원회(CDP)와 공동 주최, 한국 씨티은행과 주한영국대사관의 후원으로 제6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 (CART) 을 개최했습니다. 제6차 기후행동라운드테이블에서는 올해 영국에서 개최되는 COP26의 의장인 알록 샤마(Alok Sharma)의 탄소중립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설과 함께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관련 정책과 규제, 이행방안, 관련 국내 기업 사례를 다룬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습니다.

1. 개회사 및 기초연설

WWF 손성환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파리협정 1.5도 목표 달성을 위해 WWF는 더 많은 국내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후행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라운드테이블 개최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COP26 의장 알록 샤마(Alok Sharma) 의장은 기초연설에서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Race to Zero(파리협정 1.5도 목표와 현 기후행동 노력 간의 격차를 좁히는 캠페인)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샤마 의장은 "(세계는) 실물 경제 전반에 걸친 기후행동 없이는 탄소 중립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국 경제 리더들께 'Race to Zero' 캠페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2-1. 발표

첫 번째 발표는 WWF-Korea 정서영 오피서가 '기후와 자연에 대한 기업 행동을 위한 블루프린트'를 주제로 WWF와 BCG가 공동 발간한 기업의 실제 기후행동 액션 플랜에 대한 보고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기업 기후 완화 블루프린트는 "보고 및 공개", "SBT 목표에 맞춘 전 범위 배출량의 감축", "남은 배출량에 대한 재무 투자 규모의 설정", "기후 자연에의 긍정적 영향을 최대화하는 투자 진행" 총 4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서영 오피서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막 SBT에 가입하기 시작한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넷제로에 도달하기 위한 참고할 수 있는 톨로써 본 자료를 참고하여 넷제로에 도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탄소중립과 ESG시대의 기업 전략'을 주제로 세계적인 ESG 흐름과 탄소중립의 관계, 유형별 기업 대응 사례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기후정상회의와 P4G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와 같은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관련 주요 이벤트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전환 관련 정책과 공약, 중국의 탄소중립 선언에 대한 견해 등을 다루며, 국내 기업에 영향을 미칠 글로벌 동향과 투자자의 관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WWF 손성환 이사장



COP26 의장 알록 샤마(Alok Sharma)



WWF-Korea 정서영 오피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



법무법인 율촌 김홍 변호사



포스코 박정석 차장

2-2. 발표

법무법인 율촌 김홍 변호사는 PPA(전력구매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에 대해 소개함으로써 국내 정책과 규제를 살펴보았습니다. 김홍 변호사는 발표에서 탄소중립과 RE100 제도에 따른 PPA 제도 국내 도입의 필요성을 다루며, PPA 제도 도입을 앞서 도입한 제3자 PPA제도의 과도기적 측면을 언급하고, 한국전력공사가 개입하는 해당 제도적 장치에 관한 배경 설명과 우려 사항 등을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박정석 차장은 포스코의 탄소중립 선언 배경과 내용에 대한 사례를 공유하며, 시사점을 던졌습니다. 박정석 차장은 포스코의 2050 탄소중립 선언과 국내 제조업 최초로 TCFD지지를 선언했던 사례를 설명하며, 그린프로세스와 그린프로덕트, 그린파트너십에 포커스를 둔 포스코의 저탄소 전략을 소개했습니다.

3. 패널토론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발표자를 비롯하여 WWF-Korea 기후에너지 프로그램 안혜진 팀장과 CDP 김태한 책임연구원, UNGC 이수란 팀장이 참여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기후행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고 독려했습니다. 안혜진 팀장은 "탄소중립 시대 리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블루프린트 활용 및 SBT 수립을 통한 기업 전사적 변혁을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 김성우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탄소중립에 있어 벤치마킹할 국내기업 사례가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며, TCFD나 SASB와 같은 ESG 체계 및 지표의 필요성을 기업의 CEO가 충분히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떠한 공시 기준을 따르는 것이 좋을지, 기업 경영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 등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습니다.

CoREi는 오는 5월 P4G를 모멘텀으로 Race-to-Zero, SBTi 등 글로벌 환경 이니셔티브와 각국의 기업 참여 노력 등을 알아보는 부대행사를 5/28(금) 개최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박희원 연구원 (T. 02-749-2149)

자세히 보기

본부 소식

1. 2021 리더스 서밋 참여 안내 (6/15~16)



2021 리더스 서밋, 세계 각지에서 모인 비즈니스 리더, 정부 관계자, 시민 사회 지도자, 학계가 참가하는 금년 최대규모 행사

- **일시:** 2021년 6월 15-16일 / 온라인 개최 (26시간)
- **주요 일정:** 기조연설 / 환영 리셉션 / 실시간 질의응답 / 분과 세션 / 네트워킹 / 온라인 전시관 / 온디맨드(On Demand) 영상 세션 등
- **연사:** 추후 공지 예정

UNGC 리더스 서밋(UN Global Compact Leaders Summit)은 전 세계 수천 명의 비즈니스 리더, 정책 입안자, 시민 사회 및 학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논의하는 UNGC의 가장 큰 연례 행사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리더스 서밋은 기후변화 위기와 코로나 19 팬데믹, 사회경제적 불평등 악화, 부패 이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가능한 회복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입니다.

UNGC는 본 행사를 통해 함께 지식을 나누고, 진전 상황과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고, 지속적인 변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노력(collective action)을 독려할 것입니다. 전략적 공동노력에 대한 포부를 높이고, 공정성과 탄력성을 갖춘 세상을 재건하려는 수천 명의 글로벌 리더와 SDG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하는 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제 (Themes)

이번 서밋에서는 다섯가지 주요 이슈와 더불어 타깃젠더이퀄리티(Target Gender Equality), 노동자 권익, 양질의 일자리, 기후변화 대응, 반부패, 그리고 전략적 파트너십에 대한 공동노력을 촉구합니다.



주요 행사

이번 리더스 서밋에서는 디지털 이벤트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수천 명의 리더들과 함께 26 시간 동안 진행되는 회의와 지역별 분과 세션, 공연, 전시회 및 상호간 네트워킹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26시간 동안의 콘텐츠

글로벌 리더들은 총회와 분과세션에서 자신의 인사이트와 SDG 구현 사례 및 공동노력이 주도하는 변화의 방식에 대해 공유할 것입니다. 오늘을 이끄는 유엔과 정부, 기업 및 학계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파빌리온

리더스 서밋 파빌리온(Leaders Summit Pavilion)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파트너들이 SDGs 구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 관련 영상 공유 및 세션을 진행하는 공간입니다.



네트워킹

미래를 이끄는 수천 명의 지속가능성 리더들과 원격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됩니다. 우리는 협력과 대담한 행동을 통해 엄청난 변화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UNGC Leaders Summit 2021 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참가 등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행사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UNGC 한국협회 사무처(☎02-749-2150)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보기

2. UNGC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런칭



CLIMATE
AMBITION
ACCELERATOR



본 프로그램은 더 많은 기업이 넷제로(net-zero)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야심찬 기후 행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과학적감축목표 (SBT)를 주류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500 여 기업이 “1.5°C 를 위한 비즈니스 기후행동(Business Ambition for 1.5°C)” 캠페인에 참여하는 가운데, 유엔글로벌콤팩트는 더 많은 기업이 2030 년까지 전 세계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고 2050 년 넷제로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돕는 6 개월 간의 교육 프로그램,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Climate Ambition Accelerator)를 런칭하였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산다 오잠보 (Sanda Ojiambo) 사무총장은 “올해는 기후 비상사태를 마주해야 하는 중대한 해이며, 기업들이 집단적으로 취하는 의미 있는 조치는 지구 평균 온도 상승 폭을 1.5 도로 제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며, “새로 런칭한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Climate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은 UNGC 지역 네트워크 내 더 많은 기업들이 넷제로로의 전환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야심차며 신뢰할 수 있는 과학적 감축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할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가 주도하고 En+ Group 의 후원하며, 오스테드(Ørsted)와 나투라(Natura &Co)가 함께 하는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Climate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은 산업 규모와 업계, 지역을 막론하고 모든 기업이 기후 행동을 강화하고 배출량을 줄이며, 파리협정을 이행할 수 있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도록 할 것입니다.

본 프로그램은 과학적 감축목표 이니셔티브(SBTi)와 1.5°C 를 위한 비즈니스 앰비션 (Business

Ambition for 1.5°C) 캠페인을 개발 및 홍보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활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또한 기후변화 액션 플랫폼 (Action Platform on Climate Ambition), 지속가능한 해양 비즈니스 액션 플랫폼 (Sustainable Ocean Business Action Platform), 수자원 회복탄력성 연합 (Water Resilience Coalition)과 같은 글로벌콤팩트의 기존 환경 지속가능 발전 노력을 보완하고, COP26 에 앞서 레이스 투 제로(Race to Zero) 및 레이스 투 리질리언스 (Race to Resilience) 캠페인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 (Climate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 참여 기업들은 전 세계 글로벌콤팩트 네트워크를 통해 모범 사례 공유, 동료(peer-to-peer) 학습 기회 제공, 역량 강화 세션 및 온디맨드(On-demand) 트레이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은 25 개국 이상의 중소기업 포함 750 여개의 기업이 함께 과학적감축목표(SBT)를 설정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은 unglobalcompact.org/climate-ambition-accelerator 에서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오스테드(Ørsted)의 매즈 니퍼(Mads Nipper) CEO 는 "기업들은 환경친화적 행동의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반드시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지속가능한 접근법을 취하는 기업만이 10 년 혹은 20 년 후에도 번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스테드(Ørsted)가 기업이 탄소 감축을 사업의 핵심으로 삼도록 독려하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을 후원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오스테드(Ørsted)의 지속가능한 변모 과정과 우수한 성과 공유가 전 세계 기업들의 녹색 혁신 참여를 독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나투라(Natura & Co)의 로버토 마르케스(Roberto Marques) 회장 겸 그룹 CEO 는 "지금 이 바로 기후 위기를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며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다. 모든 기업은 더 나은, 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확보하는 데 전념해야 한다."며, "이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 방향을 잡는 일이 어려울 수 있다. 바로 이것이 기후행동 앰비션 액셀러레이터(Climat Ambition Accelerator) 프로그램 런칭이 매우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행동하고, 더 빠르게 움직이고, 더 큰 책임을 지며, 궁극적으로는 넷제로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히 보기](#)

SDGs 소식

1. [COVID-19 와 기업 지속가능성] UNGC 회원사 대응 사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UNGC 가입: 2014. 11. 6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기초예술 창작과 국민 문화예술 향유 지원, 예술가치의 사회적 확산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훌륭한 예술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믿음으로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모든 이가 창조의 기쁨을 공유하고 가치 있는 삶을 누리게 함을 임무로 삼고 있습니다. 1972년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1973년 개원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모태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현장 문화예술인 10인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합의제 문화예술 행정기관으로 2005년 새출발하였습니다. 문학·시각예술·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 등 기초예술 분야의 창작 지원,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및 문화예술향유 지원, 남북 및 국제 문화예술교류 지원, 신진예술가 및 현장예술인력 육성 지원, 지역문화예술 지원 및 협력, 예술나무운동 및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직원 성금 모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 극복을 위하여 모금희망자를 대상으로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기본급(봉급)에 대해 0.3%를 일괄 원천징수하여 모금하였습니다. 2020년 4월 기준으로 총 92명이 동참, 1,103,530원의 성금을 모금하였습니다.

예술나무로 다시, 봄! 캠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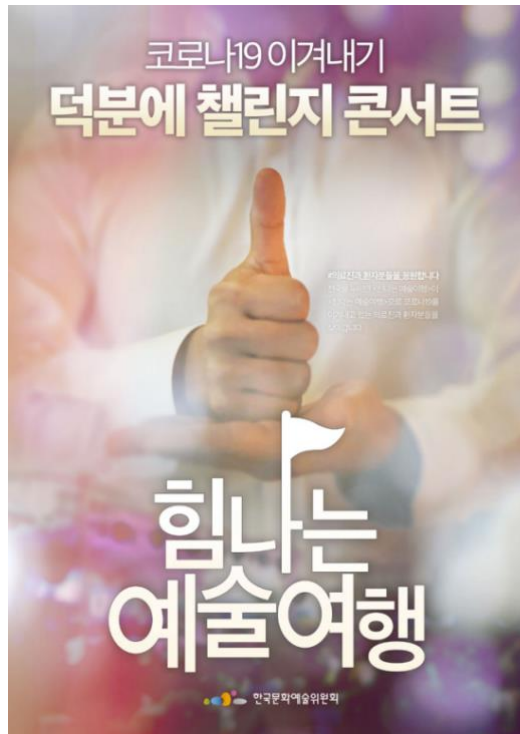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문화예술계 전반의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으며, 장기화 조짐으로 예술단체 및 예술가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어 문화예술 대표기관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예술을 주제로 한 국민들의 심리 치유를 기획하였습니다. 문화예술계의 유일한 모금 브랜드인 '예술나무'를 활용하여, 코로나 이후 극복을 위한 특별 모금 프로젝트 '다시, 봄!' 캠페인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연 성수기인 3~4 월, 봄을 잃은 문화예술계에 다시 봄(Spring)을 선물한다는 의미와 피해를 다시 살펴본다(See, Care)는 의미를 연결하였습니다. 예술위가 직접 적극적인 모금자 역할로 나서, 유관기관 및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캠페인을 전개하여 2020년 4월 기준 약 1700만원의 모금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소중한 모금액은 예술인복지재단에 전달, 피해를 입은 예술단체 및 대구 경북 지역 등에서 의미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전달할 예정입니다.

마스크 제작 기부 사회공헌 활동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전라남도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마스크 기부 캠페인에 동참하였습니다. 지난 5월 6일, 임직원들이 면마스크를 직접 제작하여 소외계층에게 전달하기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마스크 제작 기부활동을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마스크가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입니다.

<힘나는 예술여행> '덕분에 챌린지' 동참, 예술 통해 의료진 응원

예술이 필요한 전국을 누비던 이 올해는 을 추가하여 코로나 19를 이겨내고 있는 의료진과 환자분들이 계신 곳을 찾아갑니다. 5월 5일부터 코로나19 전담병원과 치료센터와 일정을 협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을 방문일로 정하여 신청한 병원과 센터에 예술단체들이 현장을 찾아가 예술로 휴식과 응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환자분들의 쾌유와 예술단체의 안전이 중요한 만큼, 공연과 전시는 비대면·원거리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며 의료진과 환자 분들이 창문 너머로 감상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집콕', 공연계 온라인 실황 생중계로 극복

예술위의 창작산실은 공연 대중화 등을 위해 '2016 공연예술 창작산실' 때부터 본격적으로 네이버 TV 를 통해 실황 중계를 해왔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19 와 상관없이 네이버 TV 와 브이라이브를 통한 중계가 예고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19 시국과 맞물려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예술위는 창작산실이 많은 관객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이 아닌 만큼, 공연 장소인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예술극장의 특별 방역을 진행하는 동시에 코로나 19 에 대한 우려로 직접 공연장을 찾기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공연실황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극단 수 '마트료시카'(2 월 23 일)가 1 만 3707 뷰, 극단 마고의 '아랫 것들의 위'(2 월 26 일)가 1 만 8122 뷰, 정형일 발레 크레이티브의 '스완 레이크 ; 더 월'(2 월 28 일)이 1 만 5394 뷰, 시나브로가슴에의 '히트&런'(3 월 6 일)이 1 만 3627 뷰를 기록하는 등 실황중계한 모든 작품의 조회수가 1 만뷰를 넘어, 이러한 노력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 19 로 어려움에 처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에서 공연되는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사업 신청도 시작하였습니다. 선정 단체에게는 공연실황 생중계 지원과 더불어 촬영된 영상의 편집본(생중계, 사전 홍보, 하이라이트)을 제공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원 대상 예방조치

코로나 19 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코로나 19 예방조치 담당자를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나주 본관 및 대학로 시설 현관에 체온계 및 열감지 카메라를 설치하고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해 매일 체온을 측정하고 발열대장기록을 작성하였습니다. 37.5 도가 넘는 고열일 경우 대기장소로 이동, 질병관리본부에 신고 후 선별진료소로 이동하는 예방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충분한 손소독제, 세정제, 알코올스왑 등을 구비하여 직원 대상 보건위생을 각별히 관리하였습니다.

코로나 19 복무관리 특별지침

사무실 밀집도 및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근태 관련 조치를 강화하였습니다. 임산부, 자녀돌봄이 필요한 직원은 재택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하여 지침 운영기간 동안 부서별로 2 교대 재택근무 편성 및 시행하였습니다. 특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기간 동안에는 사무실 출근자를 대상으로 Core Time(의무근무시간)제도를 시범운영하였습니다. 10:30~16:30 까지(5 시간)를 의무근무시간으로 지정하고 나머지 3 시간은 자율근무(지침 운영기간 동안 출·퇴근 시간 개별 자율 적용)를 통해 대인접촉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부서별 점심시간을 지정, 시간대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군중 밀집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대면 회의·보고 및 출장, 이동 제한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또한 국내·외 출장은 사회적거리두기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출장자를 최소화하였습니다. 부서장은 출장자에 대하여 매일 코로나 19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출장에서 복귀한 후에도 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회식 및 단체 워크숍, 10 인 이상의 사내 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여 주의를 강화하였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사)한국소극장협회와 함께, 민간예술단체 및 예술인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와 코로나 19 로 침체된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위해 '2020 년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1~2 차 공모는 '19.12 월~'20 년 4 월까지 진행된 공연작품을 대상으로 하며, 한시적으로 코로나 19 로 피해를 입은 공연작품의 피해경감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항목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여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문화예술향유지원을 위하여 공연예술관람료 지원 사업 및 예술창작지원 확대를 통해 예술계 피해경감을 줄이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입니다.





2. [SDGs 솔루션] 물이 필요 없는 CO2 염색법



[SDGs 솔루션] 물이 필요 없는 CO2 염색법

DyeCoo 는 원단 염색 과정에서 물과 가공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에너지 소비 또한 줄이는 CO2 기반 염색 기술을 제공합니다.

DyeCoo 는 폴리에스테르 원단 염색에 CO2 를 사용합니다. 이미 이케아, 나이키 등 주요 브랜드에서 도입한 DyeCoo 섬유 공정 시스템은 염료관에 액체 형태의 CO2 를 방출합니다. 이곳에서 열과 압력을 통해 CO2 는 직물 염색에 사용되는 초임계 유체로 변화되고, 다음 공정으로 기계가 열과 압력을 낮추면, CO2 는 염료관에서 기체 형태로 변환 됩니다. 이 과정에서 CO2 의 95%가 회수되어 재사용 가능한 액체로 다시 저장되기 때문에 DyeCoo 섬유 공정 시스템은 순환식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덕분에 처리수나 화학 물질이 필요 없으며, 공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량 또한 50%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정 과정은 기존의 직물 염색법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왜 Dyecoo 에 주목해야 할까요?

산업 수질오염의 17~20%가 섬유 염색 공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수자원에 대한 환경적 스트레스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kg 의 섬유를 처리하기 위해 최대 700L 의 담수가 필요한데, CO2 기반 염색 공정은 기존의 물을 사용하는 염색 공정에 대한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또한 DyeCoo 섬유 공정 시스템은 기존 섬유 염색 과정과 비교하여 운영비를 최대 45% 절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솔루션이 다루는 지속가능발전목표

깨끗한 물과 위생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 공정은 담수의 수요를 줄일 뿐만 아니라, 물을 사용하는 공정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오염수의 발생을 방지합니다.

혁신과 인프라 구축



DyeCoo 에 따르면, 이 기술은 염색 기계당 연간 1,500 만 리터의 물과 6,500 킬로그램의 가공 화학 물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책임 있는 소비와 생산



나이키는 섬유 염색 공정에서 물과 화학 물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대만에서 DyeCoo 장비를 활용한 물을 사용하지 않는 염색 시설을 구축했습니다.

기후 행동



공정 과정에서 회수된 CO2 염색 매개체는 재사용됩니다. 이 공정은 기존 염색 공정보다 에너지를 50%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UNGC 회원 뉴스

1. 현대글로비스, 전기차 폐배터리 '플랫폼 용기' 특허 취득



- 현대글로비스, 친환경 사업 강화로 ESG 경영 움직임에 발 빠르게 대처
- '플랫폼 용기' (전기차마다 형태 다른 폐배터리를 하나의 용기에 실어 운반) 개발 및 특허 취득 및 '대형 액화수소 운반선' (화석 연료 대신 수소 사용) 개발 착수, 세계 최초로 한국 선급과 라이베리아 기국으로부터 '기본 인증 (AIP)' 획득
- 지난해 10 월 정부, 관련 기업과 '수소차용 수소 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 물류비 절감 및 수소 대중화에도 앞장서고 있음

서울신문

2. 네이버 신사옥 · 제 2 데이터센터에 '친환경' 입힌다...환경전담조직 신설



- 네이버, 친환경 공법 및 기술 적용 목적으로 환경 전담 조직 신설
- 환경 전담 조직은 네이버 신사옥과 제 2 데이터센터에 탄소 저감 기술이나 재생 에너지 사용 관련 업무와 같은 친환경 공법 및 기술을 적용할 예정
- 김민 네이버 ESG 담당 책임리더는 "네이버는 이미 2013 년 건립된 춘천 데이터센터 각, 2016 년 프로젝트 꽃 등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한 기업"이라며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ESG 경영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함

3. 수자원공사, 국내 공공기관 최초 글로벌 RE100 가입



- 한국수자원공사, 국내 공공기관 중 최초 글로벌 RE100 가입
-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재생에너지 1 위 기업으로서 지난해 11 월 기후위기 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바 있음
- 기후변화 대응 및 정부의 저탄소 정책 이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 전담 조직 운영 등, 공공기관으로서 탄소저감 및 녹색전환의 선도적 역할 수행 중

4. IBK 기업은행, 4대 주요 ESG 국제표준 · 이니셔티브 가입



- IBK 기업은행, 선진 ESG 경영기법 습득 및 글로벌 ESG 우수은행과의 네트워킹 구축을 위해 4대 국제표준 (유엔환경계획 금융이니셔티브 (UNEP FI), 유엔 책임은행원칙 (UN PRB), 탄소회계금융 협의체 (PCAF),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 가입 완료
- 또한 탄소회계금융 협의체와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 기준 및 평가 방법 도입,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시작으로 향후 범위 확대 적용할 계획
- 기업은행 관계자, “이번 글로벌 이니셔티브 가입을 토대로 기업의 근본적 책무인 ESG 경영이 은행 뿐 아니라 중소기업에도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책은행으로서의 책임 다하겠다” 고 말함

파이낸셜신문

5. LG 전자, '그린 워싱은 가라'...6월부터 실시간 ESG 웹리포팅 도입



- LG 전자, 2006년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첫 발간 이후 2020년 14번째 보고서 펴냄
- 2021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핵심은 '중장기 지속 가능 경영 지향점'으로 3대 지향점 ('지능형 라이프스타일 촉진', '탄소 중립 및 순환 경제 실현', '더 나은 사회 구현') 과 9대 추진 과제' 마련
- LG 전자, 올해부터 보다 정량화 된 목표 제시를 위해 지속가능경영 '웹 공시' 시작
- 웹 공시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ESG 관련 국제 기준과 지표 데이터를 실시간 업데이트 반영하며, ESG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하고, 외부적으로 적극적인 소통할 것

매거진한경

※ UNGC 한국협회 뉴스레터에 소식 공유를 원하는 회원사는 사무처 (gckorea@globalcompact.kr, 02-749-2149) 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사 안내

1. 신규가입 회원

4 월 16 일부터 5 월 3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2 곳입니다.

- 코스맥스
- 도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재가입 회원

4 월 16 일부터 5 월 3 일까지 UNGC 에 가입한 회원사는 3 곳입니다.

- 네이버
- LG 디스플레이
- 롯데지주

3. COP/COE 제출회원

4 월 16 일부터 5 월 3 일까지 8 개 회원사가 COP 및 COE 를 제출했습니다.

- KT
- 미래에셋증권
- 인천항만공사
-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 근로복지공단
- 내부장애인협회
- 테크로스
- 한국국제봉사기구

미제출 회원사는 제출기한으로부터 1 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제명될 위험이 있사오니 빠른 시일 내에 COP/COE 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시는 기업/기관은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로 발간본을 송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원사는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첫 COP를 제출하고, 이후 매년 COP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영리 회원 역시 가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첫 COE를 제출하고, 이후 매 2년마다 COE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당일까지 미제출 시, 미보고(Non-communicating)기업으로 분류되며, 이후 1년 후에도 COP/COE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리스트에서 제명(Delisting)됩니다. 이에 따라 COP/COE 제출일을 지켜주시고, 제출일에 대해 안내가 필요한 회원사는 한국협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3. 2021 년도 연회비 미납 회원사 안내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매출액 USD 5,000 만 달러 이상 기업)>

하나은행, LG 화학, 한국수력원자력, 롯데쇼핑, 한국동서발전, 한전 KPS, 한국지역난방공사, 서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CJ 대한통운, 포스코, 한국중부발전

<1-2 분기 연회비 미납 회원사 (SME,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

유니베라, 슬로워크, 이알엠코리아, 엠와이소셜컴퍼니, 길바이오, 사람과세계경영학회, 한국자유총연맹, 환경재단,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국제협력단, 부산경제진흥원, 성동구도시관리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2019 년부터 시작된 UNGC 글로벌 연회비 정책의 변화로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사는 본부 및 협회의 회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회비 납부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사무처

T. 02-749-2149/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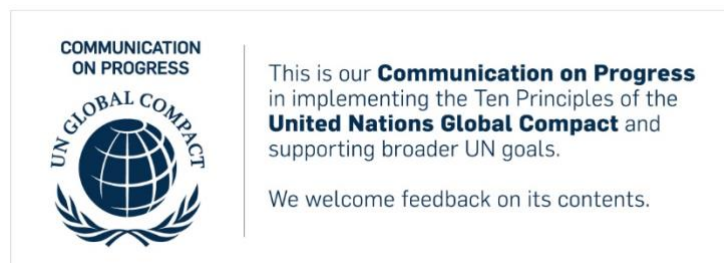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4. UNGC 로고 사용정책

유엔글로벌콤팩트는 회원과 이해관계자가 유엔글로벌콤팩트와 10 대 원칙을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도록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 하에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에서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에 한하여 “We support the Global Compact” 로고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로고 사용 허가 요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상태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유엔글로벌콤팩트 회원이며, COP/COE 가 active 인 상태
- 기업의 연간 총 수익에 따라 연회비를 납부하는 참여레벨을 선택한 단체
- COE 를 제출한 비영리 단체



“Communication on Progress the Global Compact” 로고는 COP 를 작성하는 회원이라면 유엔글로벌콤팩트 본부의 사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로고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5. 한국협회 가입 안내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한국 내 이행과 확산을 위한 세계 네트워크의 한국 대표기관입니다. 회원사는 한국협회 참여를 통해 회원 브랜드 가치 전파 및 경영 효율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회원사 간 상호 교류 및 지식 공유의 장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기관은 사무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여 방법 및 참여 혜택 바로가기

기업 정보 및 담당자 변경시 아래와 같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1. UNGC 본부 사이트(www.unglobalcompact.org)에서 관련 정보를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UNGC 한국협회 사무처에 변경된 사항에 대해 연락(메일/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89 순화빌딩 10 층

Tel: 02)749-2149/50 Fax: 02)749-2148

E-mail: gckorea@globalcompact.kr | Home: www.unglobalcompact.kr

Blog: http://blog.naver.com/ungc_korea

담당자: 이수란 팀장/주임연구원